

# 석탑 해체하니 신라·조선 불상 한번에



익산 심곡사 7층석탑 해체 보수 과정에서 출토된 불감 내부의 삼존불(사진 왼쪽)과 기타 불상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 처리를 완료했다.

## 문화재보존센터, 심곡사석탑 출토유물 보존처리 완료

익산시 2012년 님 해체·보수 불상, 불감 등 10여 점 수습 당대 양식 변화 알게 하는 단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2년 6월 미륵산 기슭에 있는 사찰인 심곡사의 칠층석탑에 대해 수리를 시행했고, 해체 과정에서 기단 중대석 내 사리공(舍利孔, 탑 안에 사리를 모시기 위한 공간)에서 불상 2점, 하부 지대석 내 사리공에서 불감 1점, 불감 내에서 금동불좌상 7점을 발견했다.

발견 유물에 대해 보존과학센터는 “이 탑은 백제, 고려, 조선의 탑 양식을 모두 간직한 조선 시대 초기의 석탑으로 불감 역시 같은 시기로 보여지나, 기단 중대석에서 출토된 불상 2점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됐다”고 추정했다.

발견 당시 불상을 모셔두는 전각인 불감(佛龕)은 사리공에서 발견된 불감 내에는 삼존불을 비롯해 총 7점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 불감은 높이 18.8cm로 유물수습 시 전각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고정되지 못해 불안한 상태였다. 또 전면의 양쪽 문은 파손돼 탈락했고, 파편은 사리공 바닥에 쌓인 흙에 흩어져 있었다.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불감이 발견되자마자 현장 수습을 하였으며, 보존처리를 위해 센터로 이송해 CT(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법)와 X-ray 투과 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감실과 불상은 금동제로 밝혀졌며, 삼존불 내부에서는 후령통(候鈴筒, 복장물을 넣은 통), 사리호, 한지 등이 확인됐다. 본존불 두상 내에서 2점의 종이문지

가 발견됐는데, 한지의 훼손이 심해 판독은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존처리를 통해 금도금층과 섬세한 문양이 드러났으며,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존처리를 통해 금도금층과 섬세한 문양이 드러났으며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됐다”며 “심곡사칠층석탑 조성 당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석 사리공의 불감은 조선 시대 초기 불감과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단 중대석에서 출토된 불상은 통일신라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진각종, 중국불교 교류 사업 본격화

진각종, 中 승덕사와 1일 우호 양해각서 체결

진각종이 중국 승덕사와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우호관계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불교 발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한방명 중국 하북성 승덕사 관리위원회 수석고문 겸 차하일 학회 주석은 5월 1일 오후 1시 진각종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에서 ‘진각종과 중국불교 승덕사 합작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진각종과 승덕사는 ‘종교의 생활화’, ‘인간불교’, ‘불교중단 및 사찰의 혁신적인 재무관리’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국내의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구 등과 종립 위대대학교가 우호대학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중국불교는 진각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승덕사와의 MOU를 통해 진각종이 70여 년동안 발전해 온 역사들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중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가면서 한국, 중국 양국불교가 공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방명 수석고문은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불교계의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각종과 MOU를 체결하고 우호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오늘을 계기로 밀접한 교류를 통해 중국과 한국 불교문화교류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고 했다. 협약식 후 승덕사는 진각종에 황재신 탐가 한 쪽을, 진각종은 전승원 모형 등을 선물했다.

승덕사는 청나라 승덕원년(1636)에 첫 불사를 시작했으며 청나라 순치10(1653)년 5세 달라이마가 ‘라쑤세쥬링(삼학강수주)사찰’이라는 명칭을 하사한 곳으로 티베트 불교 거류파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육원장 경당 정사, 총무부장 덕정 정사, 사회부장 호방 정사, 장명주 중국 승덕사 관리위원회 상무위원, 송기출 (사)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등이 배석했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 왼쪽)와 한방명 중국 하북성 승덕사 관리위원회 수석고문 겸 차하일 학회 주석은 5월 1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진각종과 중국불교 승덕사 합작 MOU’를 체결했다.

# 불교, 인문학 만나 사회를 성찰하다

시민행성 주최 ‘불교인문학·21세기 교판’ 강좌 연이어... 조성택 고려대 교수 강의

불교와 인문학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갈등에 한국불교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지 논의하는 강좌가 잇달아 개최된다.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은 공동대표인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강사로 나서서 ‘불교인문학’, ‘화쟁아카데미-21세기 한국불교 교판’ 두 가지 강좌를 선보인다.

시민행성 봄 강좌 ‘마음우주’ 부분의 ‘불교인문학’ 첫 번째 강좌는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민행성 자체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조성택 교수가 강의하는 불교인문학의 세부 강의 주제는 △사키야무니 붓다(Shakyamuni Buddha) 등장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붓다(Historical Buddha)의 재구성: biography vs. hagiography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근대 유럽이 바라 본 ‘붓다’: 부처님은 ‘영국인사’인가 ‘맑시스트’인가?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부처님은 ‘경쟁 중’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등이다.

이후 9월과 11월 ‘불교지식’의 인문학 적 이해와 불교의 역사적 이해를 주제로 불교인문학 강좌는 시리즈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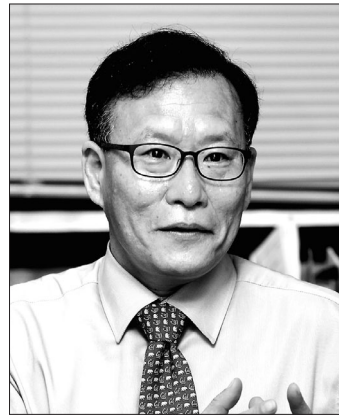
불교인문학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불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박제된 종교’가 됐다”면서 “강좌의 목표는 ‘박제된 제도’로서의 불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어 ‘지금, 여기’의 인문학적 사유로 읽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불교인문학은 불교전통을 현대적

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불교적 사유를 통해 근대 이후 오늘날 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지금 여기 나의 눈으로 ‘불교’를 바라보며, 또한 불교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인문학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불교인문학’이 현대시대의 불교가 지향하는 큰 밑그림에 대한 강좌라면, 조 교수가 ‘화쟁아카데미 강좌’로 진행하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 강좌는 한국불교의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석이다.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에 열리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 강좌는 △시민보살,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주제 △우리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원효의 화쟁론과 우리시대의



화쟁 △깨달음의 세계와 생활세계 등 총 4번에 걸쳐 진행된다.

조 교수는 “이제 한국불교는 다양한 지역 불교 전통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불교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불교가 맞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교판과 교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국불교는 21세기 세계불교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강좌 문의: 강민지(사무국장) 010-9245-3412 시민행성 홈페이지(http://citizenplanet.tistory.com)

# 서울 보타사 마애불 보물 지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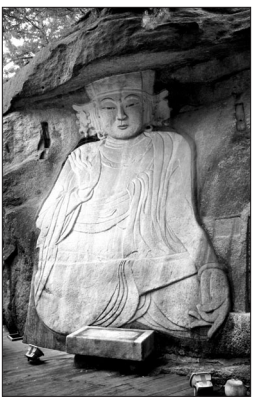
문화재청 지정 예고...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普陀寺 磨崖菩薩坐像)’은 개운사 암자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상으로 마애보살좌상 오른쪽에 새긴 신중패(神衆牌)가 보살상의 조성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상은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여말선초에 유행한 보살상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꼽힌다.

다. 불상의 밑면에 쓰여 있는 기록을 통해 1651년(효종 2)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가를 알 수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이날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는 30일간 기간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노덕현 기자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사람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 제6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에서 최면학 강의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여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형사 악사요...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 KBS 굿모닝 대한민국
- SBS 미워도 다시 한번
-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MBN 한정르포 특종세상
-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 MBC 생방송 오늘아침
- Jtbc 부모찾기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 YTN 사이언스 과학행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